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 현황과 전망

알렌 사이나이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7시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이른 시간입니다만 한국 기준으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변화로서 미국경제의 변화, 미국경제정책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화, 세계경제의 변화 및 무역관계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London Times지의 컬럼니스트인 버나드 레빈(Bernard Levin)씨는 “미래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존 웰치(John Welch, Jr.)회장도 “1990년대의 변화의 속도는 1980년대의 그것을 매우 완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경쟁은 냉혹하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수함에 대한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이제까지 해온 일들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 포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관리를 조직구조속에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몇년에 한번씩은 모든 진행과정과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즉,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주지한 상태에서 이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경영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85세의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씨가 한 말입니다. 존 웰치 회장과 피터 드러커 씨의 이와 같은 말들은 오늘날 미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를 몇 년 전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경제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제가 보아온 어느 때보다 건전해 보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의 정책은 과

거와는 아주 다릅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나라와 논란을 빚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변환기에 있으며 변화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먼저 미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제가 구조적 토대라고 칭하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확대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가 아직까지 충분히 신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경기확대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유럽, 일본의 경기가 또다시 확장되면 미국은 수출측면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미국의 경기확대도 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경제는 매년 3.5%씩 성장하였으며, 금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 4/4분기 및 1994년 1/4분기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율은 낮아지겠지만 매우 견실하게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경제의 기반이 튼튼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료만이 아니고 미국경제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요즈음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가 구조적 토대라고 언급하였던 새로운 재정 및 통화정책입니다.

여러가지 경제관련 통계수치 보다는 제가 긍정적인 구조적 토대라고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팬(Greenspan)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불리한 구조적 상황을 역풍 또는 질풍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구조적 토대와 질풍 또는 역풍은 이제 다 해결되어 지난 20~30년 중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보다 훨씬 낮은 2.5~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의 증가, 낮은 임금인상 및 단위당 노동비용의 소폭 상승에 힘입은 것입니다. 금년도 인플레이션도 대략 2.5~3%가 될 것입니다. 1995년의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아지겠지만 제 견해로는 3%

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내의 실질구매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자율이 최근들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의 상승이 확고한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순조롭게 접어드는 현대의 어떠한 선진국에서도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자율의 상승은 융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앙은행의 긴축금융정책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확대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자율이 경기확대기조를 탈선시킬 정도로 상승되어서는 안됩니다. 인플레이가 견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대폭 인상시킬 수 밖에 없게 되면 경기불황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6개월이나 7개월 전의 최저수준 보다 0.5~1% 포인트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이자율은 주택공급, 기업의 자본지출 및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 경감 등 경제전반에 걸쳐 주요한 이점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에 있어서 두번째 건전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하면 어느 국가에서든지 경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결입니다. 예상치 않던 인플레이에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높이 치솟는 이자율은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자율은 현재 상승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상승을 탈선시킬 정도는 아니며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의 이자율은 최근 25년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번째 미국경제의 건전한 구조적 토대는 생산성 증가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은 매년 3%씩 제고되어 왔습니다.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상당히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3~89년 미국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록은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지난 4년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편에 따른 성과의 일부인 노동윤

리의 변화, 치열한 실업률로 인한 높은 취업경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극심한 세계경제 경쟁 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생산성은 1960년 이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성의 높은 증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생산을 증대시키고 인플레이 압력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원천이 됩니다.

넷째, 오늘날 미국의 금융제도는 3~4년 전과는 달라져서 경제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성대출금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은행들의 경영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1970년대 초기처럼 건실해졌으며 부동산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든 또는 국내적으로든 드러내 놓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행들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야에 대해 대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재정상태도 지난 몇년동안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고찰할 때 사용하는 8가지 사항에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을 보면 1980년대의 가계재정상태 악화 중 약 75%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도 구조개편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장단기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산 중 부채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의 비율도 3~4년전의 약 절반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금융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미국의 금융기관은 3년전에 비해 훨씬 안정되어, 지속적 경기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조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의 연방예산적자는 적자 감축처방에 힘입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처방은 1990년 부시 대통령 시절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 특히 국방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1988

년 초에 이 조치를 취했다라면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적자의 감축이 정치적으로 부시 행정부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연방예산적자를 줄이는 데에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처방은 1993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가 최우선적인 경제정책으로 고소득층 및 노령층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및 전반적 지출 증가에 대한 추가삭감 조치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들 두가지 법률조치와 경제호전 및 물가안정 등에 힘입어 1994회계년도 의 적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이는 3~4년전에 1994회계년도의 적자를 약 3,250억 달러로 예상하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편 1995회계년도의 적자는 1,680억 달러정도로 예상됩니다. 재정적자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국내총생산 증가분에 대한 부채증가분의 비율은 약 52%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실질구매는 1994년에 연속 3년째 낮아질 것입니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의 경제사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이 경기상승기에 감소한 때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진 구조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기확대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국내경기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지출, 특히 가격이 비싼 품목, 내구성 소비재, 주택건설, 정보처리와 통신장비, 그리고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에 대한 자본지출 등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은 것입니다. 미국경제가 지난 2년동안 연 3.5%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러한 자본지출과 소비지출 및 주택건설 호황에 힘입은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이와같은 경기상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었으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만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3년동안 두 번이나 세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정부지출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볼 때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이의 부문의 구매도 3~4년 전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감소는 법률에 의해 계속될 것

입니다. 1993년에는 연방정부의 총구매한도를 5,400억달러로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하였던 캘리포니아주 지진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65억 달러가 금년도에 집행되면서 한도를 넘게 되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아주 예외적인 비상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는 법률로 제정된 한도금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교육, 경제하부구조, 기술 또는 기술혁신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자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며, 다른 프로젝트와 대체되어야 합니다. 5,400억 달러는 총 연방예산의 1/5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나머지는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들로 이 부분의 예산 역시 더욱 완만하게 증가하여 지난 해에는 약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아 물론 미국은 대규모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무역부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해에는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을 잠식하였습니다. 1995년과 1996년에 독일, 유럽, 일본, 멕시코 등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무역이 활성화되어 미국경제는 1995년과 1996년은 물론 그 이후 오랫동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또다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간 3% 정도의 성장세가 3~4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어 확고한 경기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 특히 한국 등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국가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방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고, 독일과 유럽, 일본이 아직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제성장이 미약하여 미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 규모를 줄이고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창출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직장이 창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확고한 직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내 직장들의

급여수준이 과거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와는 달리 고용안정이 나 복리후생제도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언급한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수십년동안 제가 본 것 중 최상의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구조적 토대를 현재 지탱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적과 초두에 제가 언급한 변화는 1988~91년과는 대조적으로 미국경제의 건실하고 탄력적이며 굳건한 발전을 향한 변화입니다. 제가 서술한 이러한 확고한 경기확대와 건실한 경제수행의 일부로서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은 경기확대의 세번째 해로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경기상승기의 첫 해에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보다 빨리 상승하지 않았던 한가지 이유는 미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낮은 인플레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는 1960년대 초기 이래 어느 때 보다도 낮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낮은 인플레이는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낮은 인플레이와 낮은 이자율은 구매력 증진과 자본지출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활력이 됩니다.

경기확대의 3년째 무렵에 나타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 연방중앙은행은 인플레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을 변경시켜 왔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될 규제적인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학자와 계량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이와같은 변화를 구조적 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부로 미국 및 세계 곳곳의 금융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자율이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주요 경제대국의 주식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정책은 국민들

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게는 인플레이가 경제지표상으로도 명백하게 나타난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과 인플레이가 크게 문제시되기 전에 인플레이와 싸우는 두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플레이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과학적 사회에서는 틀림없이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인플레이가 닥친 후에 인플레이와 싸우는 것과 인플레이를 깨닫기 전에 인플레이와 싸우는 것 중에서 후자가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별 효험을 보지 못했던 방법을 취하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가 시작되고 나서 연방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는 속성상 나타날 때 쯤이면 그 과정이 이미 확고하여 쉽사리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중앙은행의 정책은 인플레이와 싸우는 데 너무 미흡하였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었습니다. 인플레이 압력은 중앙은행이 금융긴축정책을 시행한 후에도 계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크게 올려야 했으며, 그 결과 경기후퇴와 많은 실업을 발생시키는 자금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처방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 압력이 문제로 대두되기 1년정도 전에 단기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미국 연방중앙은행은 내년과 후년의 높은 인플레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에 대한 선제공격, 즉 문제를 발견하기에 앞선 처방으로서 경제학적 예방치료입니다. 이러한 예방적인 방법은 연방중앙은행의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첫째는 적응이라고 불리는 저금리정책으로 이것은 3~4년동안 유효합니다. 둘째는 정책의 중립성으로 현재 연방중앙은행은 이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높은 단기이자율정책이 포함됩니다. 셋째 단계는 규제 및 제한으로서 이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세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현 정책의 목표는 두번째 단계의 정책적 중립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단기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볼 때 정책적 중립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것은 총수요의 증가가 총공급이나 총생산능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기이자율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정부가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면서 연방기금의 이자율을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단기이자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중립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유연하게 하거나 인플레이를 1년정도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을 때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단기이자율이 인상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이자율이 얼마나 인상되고, 얼마나 많은 처방이 제시될 것인지, 그리고 단기이자율을 어떤 수준까지 변화시킬지는 몰랐습니다. 이와같은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재로 장기고정금리채권의 구매자들은 연방중앙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리고 얼마나 연방기금이자율을 올릴지 예측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기고정금리채권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기금의 이자율은 약 2배정도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고금리는 해외시장으로 확산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달러화는 약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달러화 보다는 금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세계도처의 위험과 많은 정치적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연방중앙은행 정책의 불확실성과 단기이자율 및 장기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일련의 사건, 즉 금융시장의 변화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에 있어서 문제의 징후 또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순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행의 일부분입니다. 즉, 이자율이 연방중앙은행에 의해 경기확대기에 처음으로 상승되면 주식시장은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1월에 다우 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가 4,000이었던 것은 미국경제의 경

제적 기반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8월이나 연말경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 4,000은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으며 사채시장은 너무 과열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방금융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그 의미나 집행방법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와같은 특수한 문제에 대한 연방중앙은행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3월 22일 연방기금이자율은 또다시 0.25%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연방기금이자율 기준은 약 4.25%로서 5%까지 높아질 수도 있고, 3.75%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새로운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3% 인플레이션 상태하에서 4.25%라는 연방기금이자율은 실질적으로는 1.25%가 되는 것입니다. 1.25%의 실질 단기연방기금이자율은 미국경제가 상당한 균형상태를 보였을 때의 기준과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정책중립성에 걸맞는 단기이자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방중앙은행이 미국경제에 적용하는 단기이자율을 2~3차례 더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월 4일보다는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이자율에 민감한 분야는 금년 말경에 약간의 타격을 입고 1995년의 성장도 조금 둔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억제할 것입니다.

인플레이가 뚜렷하게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기적 인플레이를 억제하려는 중앙은행의 대처방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의 기초가 되는 여타 요인들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미국경제의 손익분기점은 낮은 반면,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단위노동비용도 0.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동향은 안정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는 낮은 수준에 머

무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임금상승률도 완만하고, 이 추세가 급속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미국의 인플레이에 대한 주요 위협은 잠재적 공급의 증가속도에 비해 총수요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2.5~3%를 보이고 있는 공급능력 증가율과 비슷한 속도로 수요가 증가하도록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이와같은 접근방법은 미국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인플레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득을 지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과 실질임금 및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은 미국경제의 경기후퇴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가 일어날 위험은 없기 때문에 연방중앙은행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후퇴를 낳으면서까지 인플레이를 퇴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에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극단적인 금융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번째 정책변화도 장기적인 것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은 정치적 조정을 통해, 그리고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나타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지향하는 바가 장기적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시각이 장기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계는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단기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과에 관해 참을성이 없고 어린애와 비슷한 정도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적자감축인데,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보다 많은 고용기회 창출”이 최우선 목표이었습니다. 클린

턴 대통령은 지난해 2월의 대국민연설에서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지출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수치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향후 5년간 약 4,5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1의 정책정강은 적자감축이었습니다. 예산 전문가, 연방준비은행 알렌 그린스팬 총재 등은 이것을 선의의 적자삭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항상 어떻게 적자가 발생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보다 많은 지출삭감과 보다 적은 세금 인상이 더 나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자총액과 적자삭감요소를 이전의 적자규모와 비교할 때 이것이 선의의 적자삭감이라는 데 대한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경제프로그램에 나타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정강 가운데 하나인 적자감축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적자폭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민간부문 저축률의 상승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자본이 축적되어 자본투자가 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실질임금이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성 증가와 높은 실질임금 및 생활수준이 적자삭감에서 벗어난 다음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세금인상과 정부지출삭감은 직업을 창출하기 보다는 중·단기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소비자 및 업체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적자삭감의 효과를 낮은 이자율과 저축의 증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다 많은 자본형성과 저축이 자본지출과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에 대한 반응은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부 관리들과 대통령이 적자삭감을 제1의 정강으로 주장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행정부 경제계획중 제2의 정강은 의료제도개혁입니다. 행정부 관리들과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는 의료보장지출이 모든 경제부문—즉 가계, 기업 및 정부부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서비스 비용상승 억제와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이 비용이 감소된다면 가처분소득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와 회사는 보다 생산적이 될 것이며 근로자의 실질임금과 실질가처분소득 및 생활수준은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심의되고 있는 의료보장안은 대통령의 원래 제안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의 의료보장개혁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뿐으로, 이는 적자삭감이 장기적으로 미국인의 실질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온다는 맥락에서 의료보장개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정강은 대외무역 강화입니다. 행정부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증대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수출업은 미국 내 다른 직업보다 평균 급여수준이 높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수출업부문의 고용비율이 커질 것이며, 이는 미국인의 실질임금을 높임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행정부가 무역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리고 교역상대국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명백한 것은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역관련 정책이나 목표는 상당히 장기적인 것입니다.

경제 프로그램에는 두가지 정강이 더 있는데 이는 인력자원과 경제하부구조 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는 행정부가 예산법하에서 훈련과 재훈련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기금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현재 의회에 근로자 재훈련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공공부문의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교육과 훈련 및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투자지출은 생산성 향상, 잠재적 공급의 증대 및 미국인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정강은 정보초고속도로와 같은 기술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

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근거로 생산성 향상,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내에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한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클린턴 행정부의 장기적인 시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국과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는 매우 장기적인 속성을 지닌 일련의 정책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인플레이를 낮추고자 하는 작업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할 뿐이며, 여러분은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국내총생산에서 소비의 몫을 줄이고 정부와 연방부문의 적자를 삭감하는 한편, 기업자본의 형성과 기계, 장비와 컴퓨터, 전자장비 등 자본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강과 강철이 포함되는데,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국내총생산 중 수출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와같은 목표는 1980년대와는 거의 반대이며, 정치적으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어떤 정책의 결과는 정책이 추진된 후 1~2년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8년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무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비중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은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바, 이미 일본 및 일부 국가와의 무역—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비율을 높이고 교역상대국의 성장을 증대시키면서 시장을 개방하도록 추진하는 움직임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111개국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에 서명한 새로운 GATT 협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은 이들 두 협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수출증대를 위하여 일본과 말썽많은 무역교섭을 벌이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저는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접근방법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를 원하며, 이를 매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절충적이고 비이론적이며 비교리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매우 이론적이며, 모두 자유무역주의자입니다. 자유무역은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그 틀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에서 일본 및 여타 국가들과 말썽 많고 마찰이 숨겨져 있는 위험한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자국의 두번째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문제를 다룰 때 일본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 달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밀어부치기도 하면서 강경한 기본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을 위한 정치적 압력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내 유통제도와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할 것입니다. 일본의 성장을 증대시키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전반적인 시도는 일본측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무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퍼 301조와 같은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미국이 대외교역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진행중인 지를 알

려주는 이론은 없으며 아주 중대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두 국가간의 논쟁은 경제적 및 다른 이유때문에 발생하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자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완화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해 파종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일이 금년 하반기에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경상수지흑자와 미국과의 무역수지흑자가 감소되면, 그로부터 1년 또는 1년반 뒤에는 무역마찰이 아마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상황은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경제는 변화하고 있으며, 전환기에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경기확대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아주 확고한 경기호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제국,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 일부로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금리는 금년에 상당히 내려야 하며, 내릴 것입니다. 1995년에 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도 금년중에 어느 정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경제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초과수요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어렵게 모색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일본 이외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계속 고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건설하고 역동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홍콩과 한국은 인플레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경기과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은 6~7% 정도에 이를 것이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남반구의 중남미 대륙에 있는 멕시코는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기를 잘 넘기면 보다 강력한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며 아르헨티나와 칠

례의 경제성장실적은 멕시코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요인을 제거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동구와 러시아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동구, 즉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가 강력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놀라울 정도로 낮은 인플레이를 유지하며 건실하게 회복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다 낮은 이자율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영국경제가 현재 매우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995~97년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확대된다면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황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경기확대로 인해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무렵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고 과거 수십년동안 보다 더 평화로운 상태가 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4가지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미국경제가 최상의 구조적 토대를 가진 건실한 경제로 변화하여 향후 몇년동안 계속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미국정책의 변화인데, 전체 금융시장의 조정을 가져오게 한 주요원인인 새로운 연방중앙은행의 접근방법의 변화입니다. 경제의 확장기에 일어나는 금융시장의 조정은 정상적인 것이며, 어떤 의미에는 초과수요가 더 커지기 전에 방지하여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입니다. 이전의 여러 행정부와는 달리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것을 지향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재정적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포함됩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변화, 즉 1995년에는 유럽과 일본경제가 정체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는 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중남미 경제도 회복됨으로써 거의 모든 나라들이 물가안정 속에서 성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토론

사 회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관해 아주 상세하고 명쾌한 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 답 사이나이 박사

제가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지 못했던 어떠한 상세한 질문에도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 의 심 근섭 (대우증권 전무)

일본 엔화의 환율동향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답 사이나이 박사

달러화는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상승해야 합니다.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승은 독일 마르크화와 유럽공동체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승보다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에 드리운 암영이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승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에 드리운 암영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무역논쟁에는 어느 때라도 미국이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거나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됩니다. 무역에 암영이 드리워져 있는 한, 시장참여자들은 미국의 환율조작을 두려워 하겠지만 저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환율을 조작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미국경제의 성장이라는 기초와 달러화에 대해 작용하는 보다 높은 미국의 이자율, 그리고 제가 서술하였던 긍정적 토대로부터 우리는 금년 초여름에 달러당 105~110엔, 금년말 경에

는 110~115엔을 예상합니다. 금년에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질 의 이 상설 (월정인터내쇼날 사장)

전반적인 국제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국제연합과 세계무역기구(WTO)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첫번째 질문이며, 두번째 질문은 MTO, WTO ITO 및 GTO에 대한 것으로 박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답 사이나이 박사

우선, 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UN간의 관계가 아직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TO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가지 무역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차후에 규정될 것입니다. UN은 국제정치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 무역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으로서 창설되는 WTO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기본경향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 보다 개방된 무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저는 근간에 이루어진 GATT와 NAFTA의 조인을 이것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역문제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일본, 중국과 벌이는 논쟁은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며 진실로 근본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제 견해는 현 세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평화로운 상태이며, 그 경향은 다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경쟁하고 싸우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은 MTO에 대한 것입니까?

질 의 이 상설 사장

다자간무역기구(MTO)로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습

니다만, 1946년에는 UN 산하에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검토되었으나 창립되지 못하였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21세기 언젠가는 범세계무역기구(GTO)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 사이나이 박사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무역은 UN이 다루고 있는 정치적 고려와 대결과 같은 유형과 점점 더 분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세계무역기구들은 무역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경제분석과 연구는 국가간의 보다 밀접한 무역관계와 무역의 증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무역관계와 보다 자유로운 무역에서 얻게 되는 이득은 장기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질의 사공 일 이사장

좀더 학술적인 질문을 두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박사께서 말씀하신 인플레이를 진정시키는 예방적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화정책을 통한 조율과 유사한 것으로 들립니다. 물론 사이나이 박사께서는 이러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주요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통화정책을 통한 조율의 성패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성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다 나은 정보, 이론 또는 금융제도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미국경제에 대한 사이나이 박사의 낙관적 견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경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미국의 경제력이 장기적인 상대적 하강추세를 반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폴 케네디 박사의 저서『강대국의 흥망』이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은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추세가 반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나이 박사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응답 사이나이 박사

미국 연방중앙은행의 예방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 1년전에 미리 문제와 싸우는 것은 새로운 정책입니다.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에 의하면 금년 인플레이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과 생산고의 차이, 가동율과 실업율 등은 높은 인플레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3%의 성장을 가정하면 시기는 내년 언제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예정보다 1년정도 빨리 단기이자율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운용하던 과거의 방법에 따른다면 중앙은행은 지금으로 부터 1년정도는 단기이자율을 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두번째 과학적 항목은 연방중앙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 감시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방법은 상품가격, 금가격과 같은 것을 고찰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가격지수(PPI)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생산격차와 이용률 및 실업률은 대략 6.5%를 나타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지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채권시장의 이자율은 0.5%포인트 정도 높은 것입니다. 채권시장은 현재의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내년에 일어날 고 인플레이의 위험을 20%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방중앙은행의 높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어우러짐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1년후에 대한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기를 꺾고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모든 형태의 인플레이에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조치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 더 있을까요? 저는 미국 등 각 나

라가 이와 같은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모델은 금융시장에 대한 것으로서 아주 세부적인 600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개방경제모델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이제까지 보다 금년에 0.5%포인트, 내년에는 0.8%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며 인플레이도 0.2~0.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를 기대하는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를 억제하면서 완만하나마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0.5%포인트 인상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0.5~0.7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미국경제가 향후 1년 또는 그 이상기간 동안 성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데 대한 것입니다.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하강 추세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2020년이나 2030년의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경제는 '90년대에 분명히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발전을 향한 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제도와 관련된 것이지 경제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연방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등은 미국이 정치인들에게 보내야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과 재건, 부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미국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으며, 지난 3~4년 동안 저는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초보적인 역사가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저는 미국이 항상 전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공일 이사장님의 질문은 합당합니다만 그 질문은 이사장님과 아마 여기 계신 청중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차원을 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경제의 구조적 토대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정체되어 있으며, 독일은 재통일의 후유증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 또는 일본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유심히 지켜 보십시오. 미국은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경제, 정치, 기업 등의 분야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질 의 토마스 해리스(주한 영국대사)

유럽전체가 경기후퇴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주신 사이나이 박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역정책에 대한 앞서의 질문에 이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클린턴 대통령은 NAFTA 기준을 처리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의회 기준에 전념함으로써 금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까?

둘째, UR의 결과로서 줄어들게 될 130억 달러의 관세수입을 미국의 회는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응 답 사이나이 박사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NAFTA비준시 했던 것처럼 GATT의 최종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모든 장애요인들이 NAFTA의 경우 처럼 바로 제거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 해에 대통령이 매우 늦게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GATT에 대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공약입니다.

GATT의 새로운 협정 발효로 줄어들게 될 관세수입 130억 달러는 예산법과 관련하여 볼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취해졌던 것처럼 예산법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